

2000년대 대중매체에 드러난 양가적 근대성의
표출로서 ‘된장녀’ 현상의 두 층위

- 1920~30년대 대중매체에 드러난 ‘모던걸’ 현상과 비교하여

손형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차 례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배경

1. '모던걸'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 1) 1920~30년대 대중매체에 드러난 '모던걸'에 대한 기존 연구
 - 2) 개념 정의: 모던걸
2. '틴장녀'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III. 접근방법

1. 분석 대상의 한정 및 구체화
2. 분석틀

IV. 연구문제와 연구대상

V. '틴장녀'의 두 층위 분석

1. '틴장녀'의 첫 번째 층위: 실재
 - 1) 프랜차이즈 커피와 미국식 외식업체를 소비하는 여성
 - 2) 자신을 치장하는 물품을 소비하는 여성
 - 3) 남성을 경제력으로 평가한다고 추측되는 여성
 - 4) 남성을 위협하는 여성
2. '틴장녀'의 두 번째 층위: 담론
 - 1) 서구적 문물에 대한 욕망과 자본주의적 소비 욕망의 표출
 - 2) 교양과 지성의 결여
 - 3) '전통적 젠더 규범'의 위반
3. 실재와 담론 사이의 간극

VI. 결론

* 참고문헌

〈논문초록〉

2000년대 대중매체에 드러난 ‘된장녀’ 현상은 실재와 담론의 두 층위로 분리되어 나타났다는 점에서 1920~30년대 대중매체에 드러난 ‘모던걸’ 현상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실재로서의 ‘된장녀’가 바탕을 두고 있는 실제 여성 집단은 ‘프렌차이즈 커피와 미국식 외식업체를 소비하는 여성’, ‘자신을 치장하는 물품을 소비하는 여성’, ‘남성을 경제력으로 평가한다고 추측되는 여성’, ‘남성을 위협하는 여성’, 이상의 네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네 집단은 기본적으로는 서로 이질적인 성격의 집단이며, 각 집단에 속한 여성들은 서로 다른 상황과 맥락에서 소비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정한 소비 형태나 행동을 취하는 순간, 그 소비나 행동이 놓인 상황이나 맥락은 소거된 채 그 여성은 ‘된장녀’로 호명된다. 대중매체라는 장(場)에서 만들어진 구성물로서의 ‘된장녀’는 서구적 문물에 대한 욕망과 자본주의적 소비 욕망의 표출, 교양과 지성의 결여, ‘전통적 젠더 규범’의 위반이라는 ‘나쁜’ 속성을 한 데 지니고 있는 집합소였다. 즉, 한 젊은 여성이 ‘된장녀’로 호명되는 순간, 그 여성은 비주체적이고 허영에 들떠있으며 남성을 수탈하는 ‘나쁜’ ‘된장녀’라는 속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된장녀’의 실재와 담론이 분리되고 담론으로서의 ‘된장녀’가 ‘나쁜’ 여성으로 규정되게 된 배경에는, “외압에 의한”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이 놓여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근대성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한 데 지닌 양가적인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구적 문물에 보다 친화적인 ‘젊은 여성’은 양가적 근대성이 투영되기 쉬운 집단이었다. 근대성의 양 측면 중 ‘비주체적이고 천박하고 나쁜’ 속성이 투영된 집합소가 ‘모던걸’과 ‘된장녀’였다. 그런 점에서 80년에 가까운 시차에도 불구하고 ‘모던걸’과 ‘된장녀’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I. 문제제기

2006년 하반기,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슈 가운데, 이른바 ‘된장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서양식 생활 방식을 동경하는 사치스런 젊은 여성”¹⁾을 가리키는 ‘된장녀’는, 이내 TV 뉴스, 신문 등 주류 언론에서까지 다루어지게 되며 한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된장녀’를 둘러싼 논란은 이후 인터넷, TV 뉴스, 신문, 주간지 등의 여러 매체에서 꾸준히 펼쳐졌다. 이러한 매체에서 펼쳐진 논란은, ‘된장녀’를 성토했다는 내용의 글

1) 「[새 말 탐험] 된장녀」(2006. 09. 21), 『한겨레신문』, 30면.

이나 언설에서부터 ‘된장녀’의 실체를 부정 - 이른바, “된장녀는 없다, 그것은 허상의 개념이다” - 하는 내용의 글이나 언설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된장녀’와 그를 둘러싼 논란은 가히 ‘된장녀’ 현상이라 할 만하다.

‘된장녀’ 현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실재로서의 ‘된장녀’와 담론²⁾으로서의 ‘된장녀’가 어느 정도 분리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기표로서의 ‘된장녀’가 바탕을 두고 있는 실제의 여성 집단과, 대중매체라는 장(場)에서 언설과 글, 이미지 등으로 형성되고 이야기되며 만들어지는 구성물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다. 2006년 8월 4일 『조선일보』 A24면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조선일보가 서울지역 남녀 대학생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 ‘된장녀 혹은 된장남이 실제로 캠퍼스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둘 다 많다’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은 37.4%였다.³⁾ 표본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이 채 안 되는 비율이다. 많은 사람들이 ‘된장녀’라는 기표를 빌어 특정한 외양, 소비형태 등을 지닌 2,30대 여성을 비판하고 조롱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된장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젊은 여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2000년대 한국사회의 ‘된장녀’ 현상이 실재로서의 ‘된장녀’와 담론으로서의 ‘된장녀’의 두 차원으로 분리되며 이 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양상은,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사회의 ‘모던걸’이 존재했던 양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김수진(2005)에 의하면 당대의 ‘모던걸’ 현상 역시, 실재로서의 ‘모던걸’과 담론으로서의 ‘모던걸’이 분리되어 나타났으며, 둘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했다. 즉, ‘모던걸’이라는 기표가 바탕을 두고 있는 실제의 여성 집단은 “취약”했으나, 대중매체 등의 ‘담론장’⁴⁾에서 생산되었던 담론으로서의 ‘모던걸’은 “과잉”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⁵⁾

2) 미셸 푸코에 의하면 첫째, “모든 언술들의 일반 발생 영역”, 둘째, “개별화된 언술 집합들”, 셋째, “규칙에 지배받는 실천”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책에서 재인용. (사라 밀즈(2001), 『담론』, 김부용 역, 인간사랑, pp. 19~20.)

3) 「대학가 新남녀갈등... 된장 여학생 vs 고추장 남학생 논쟁 허영부리는 '된장女' vs 궁상떠는 '고추장男」(2006. 08. 04), 『조선일보』, A24면.

4) 김수진(2005)에 의하면, ‘담론장’이란 “미셸 푸코의 담론생산에 대한 논의를 빌어 만든 용어로 담론적 실천이 행해지는 영역이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묘사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으로서 매체와 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과 기술, 정치사회적 규제의 차원, 이념적 자원, 그리고 담론생산과 수용을 담당하는 주체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논문에서 인용. (김수진(2005), 「1920~30년대 신여성담론과 상징의 구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p. 21.)

5) 김수진(2005), 「1920~30년대 신여성담론과 상징의 구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상과 같이 ‘모던걸’ 현상과 ‘된장녀’ 현상이 두 층위로 분리되어 존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1920~30년대와 2000년대 한국 사회의 공통점에서 그 중 하나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모현주(2007)에 의하면, 1920~30년대와 2000년대의 한국사회는 “외압의 영향” 아래 서구적·자본주의적 근대화의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⁶⁾ 그러나 이러한 근대성은 서구적인 것이고, 한국사회의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근대성은 ‘새로움, 진보, 도달해야 할 것, 지향해야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천박함, 경박스러움, 나쁜 것,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한 데 지니게 된다. 김진송(1999)은 이를 “우리의 현대화 과정”에서의 “서로 모순된 표상체계” - ① ‘서양=산업화=도시화=발전된=훌륭한 것’과 비교되는 ‘동양=비산업적=농촌의=저개발=나쁜 것’이라는 표상체계와 ② ‘민족적=전통적=주체적=소중한=좋은 것’과 비교되는 ‘서양적=현대적=비주체적=천박한 것=나쁜 것’이라는 표상체계 - 로서 설명한다.⁷⁾ 즉, 19세기 말 이후 한국사회에 있어 근대성이란, ‘열등하고 뒤떨어진’ 동양(조선, 한국) 문명에 대립되는 ‘우월하고 발전된’ 서양(혹은 서양을 모방한 일본) 문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소중히 지켜가야 할’ 민족 문화·정신에 대립되는 ‘비주체적이고 천박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에서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은, 양가적 측면을 한 데 지닌 근대성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지점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젊은 여성’은 이 근대성이라는 ‘새로운 것’에 대해 친연성이 강하기 때문이고, 둘째, 주류담론의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남성 혹은 남성 중심적 시각의 소유자가 많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이 근대성이라는 ‘새로운 것’에 대해 친연성이 강한 이유를 부연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김진송(1999)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와는 현격하게 다른 문화적 환경 때문”이다. 즉, 기존의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도 손해 볼 것이 별로 없었던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어느 한쪽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⁸⁾ 또한 모현주(2007)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에 불합리성과 모순을 느끼는 여성들에게 있어 “글로벌 차원에서 제시되는 자유와

6) 모현주(2007), 「20, 30대 고학력 싱글 직장 여성들의 소비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학위 논문, pp. 51~52.

7) 김진송(1999), 『현대성의 형성: 서울에 판스홀의 許하라』, 현실문화연구, pp. 17~18.

8) 김진송, 전계서, pp. 204~206.

행복, 그리고 성공의 가능성들”은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⁹⁾ 따라서 ‘젊은 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새로운 것’을 좀 더 급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때문에 당대 사람들이 양가적 근대성을 체화한(혹은 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을 호명해내는 양상 - 이를테면 ‘모던걸’이나 ‘된장녀’로 - 은, 양가적 근대성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젊은 여성’을 호명해내는 주체는 남성 혹은 남성 중심적 시각의 소유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모던걸’ 현상이나 ‘된장녀’ 현상에서 ‘모던걸’이나 ‘된장녀’는 실재와 담론이 분리되어 나타났다.

본고는 2000년대의 ‘된장녀’ 현상이 1920~30년대의 ‘모던걸’ 현상과 유사하게 실재와 담론이 분리되어 나타났음에 착안하여, ‘된장녀’ 현상의 이 두 층위 - 즉, 실재로서의 ‘된장녀’와 담론으로서의 ‘된장녀’ - 를 대중매체의 기사 분석을 통해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된장녀’ 현상의 두 층위와 ‘모던걸’ 현상의 두 층위의 유사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의 양가적 근대성이 ‘젊은 여성’이라는 필터를 통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모던걸’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1) 1920~30년대 대중매체에 드러난 ‘모던걸’에 대한 기존 연구

1920~30년대 대중매체에 드러난 ‘모던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모던걸’을 ‘신여성’과 구분하지 않은 채, 1920~30년대 대중매체에 드러난 ‘신여성’에 대해 연구한 방향이다.¹⁰⁾ 이 연구들은 대개 잡지 『신여성』을 대상

9) 모현주, 전계논문, pp. 52~53.

10) 권희영(1998), 「1920~30년대 ‘신여성’과 모더니티의 문제 - 『新女性』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54집, pp. 43~76; 김진송(1999), 『현대성의 형성: 서울에 만스홀의 許하라』, 현실 문화연구; 김경일(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윤영옥(2005), 「1920~30년대 여성잡지에 나타난 신여성 개념의 의미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의 - 『신여성』을 중심으로-」 『國語文學』 第40輯, pp. 201~224;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2005), 『신여성(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참조.

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권희영(1998), 김진송(1999), 김경일(2004), 윤영옥(2005), '연구공간 수유+너머'(2005)의 논문 및 저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방향에 속하는 연구는 대중매체에서 '신여성' 담론이 만들어지고 인식되는 양상, 그리고 '신여성' 담론과 근대성의 밀접한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신여성'과 '모던걸'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표출한다.

두 번째, '모던걸'을 '신여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연구한 방향이다.¹¹⁾ 김수진(2005), 서지영(2006), 주창윤(2008) 등의 논문이 여기에 속한다. 이 방향의 논의에 있어 최초의 연구를 남긴 김수진은, '신여성' 현상에 있어 과잉된 담론적 열기와 취약한 집합적 실재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신여성 상을 세가지의 상징 - 신여자, 모던걸, 양처 - 으로 파악하였다. 김수진에 의하면, '신여성'에는 근대적 식민사회의 정체성이 투영되어 있는데, '모던걸'은 "신여성의 한 별칭"으로서 "모방 욕망의 '나쁜' 측면이 모여 있는 집합소"¹²⁾였고, "실재보다는 상상의 대상에 더 가까"¹³⁾운 일종의 담론이었다. '신여성'과 '모던걸'의 개념을 구별한 김수진의 논의를 받아들인 서지영은, 여성 산책자와 담론 속에 재현된 '모던걸'의 관계 양상에 주목하여 담론을 넘어 실재했던 '모던걸'을 재구성해냈다. 그에 의하면 실재했던 '모던걸'이란, 여학생, 기생, 여급, 좁은 의미의 '모던걸'(“신중 여성직업인으로서의 각종 ‘-걸들”¹⁴⁾) 등 이질적인 계급과 성격의 여성이 혼재했던 집단이었다. 이 방향에 속하는 연구는 '모던걸'을 '신여성'과 구별되는 특정한 담론과 실재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2) 개념 정의: 모던걸

이상의 기존연구는 대중매체에 드러나는 '모던걸' 현상이 근대성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그 현상이 담론과 실재로 분리되어 나타났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모던걸'의 개념을 두 가지 층위로 정리

11) 김수진(2005), 「1920~30년대 신여성담론과 상징의 구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서지영(2006), 「식민지 조선의 모던걸: 1920~30년대 경성 거리의 여성 산책자」,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한국여성학회, pp. 199~228; 주창윤(2008), 「1920~30년대 '모던 세대'의 형성 과정」, 『한국언론학보』 52권, 한국언론학회, pp. 186~206 참조.

12) 김수진, 전계논문, p. 322.

13) 김수진, 전계논문, p. 272.

14) 서지영, 상계논문, p. 211. 서지영에 의하면 각종 '-걸들'에는 “츄걸”, ‘데파트걸’, ‘엘리베이트걸’, ‘헬로걸’, ‘버스걸’, ‘타이피스트’, ‘스티걸’, ‘마네킹걸’, ‘카페걸’ 등이 있다.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층위는 실재로서의 ‘모던걸’, 즉 기표로서의 ‘모던걸’이 바탕을 두고 있는 실제의 여성 집단이다. 이들 여성 집단은 여학생, 신중 여성직업인으로서의 각종 ‘-걸들’, 기생, 여급 등이다. 이들은 서로 이질적인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허영과 섹슈얼리티를 노출하는 여성 전반을 범주화”¹⁵⁾한 개념인 ‘모던걸’의 이름 아래 ‘나쁜’ 여자로 단일하게 파악되었다. 이들이 지니는 ‘나쁜’의 지표는, 서구적 외양·취미·라이프 스타일, 자본주의적 소비 욕망의 노출, 섹슈얼리티의 향유에 대한 욕망 등이다.

두 번째 층위는 담론으로서의 ‘모던걸’, 즉 『신여성』 등의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한 신여성 담론장에서 만들어진 구성물이다. ‘모던걸’은 신여성 담론장에 양가적 의미를 지닌 식민주의적 정체성이 투영되면서, 이것을 ‘나쁘게’ 모방하는 양 측면 - 신문물에 대한 소비 욕망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욕망 - 이 모여 있는 집합소였다.

2. ‘된장녀’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된장녀’ 현상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기존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된장녀’ 현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아니지만, 논문의 일부에서 ‘된장녀’ 현상을 언급한 경우로는 모현주(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모현주는 “20, 30대 고학력 싱글 직장 여성들의 소비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을 단 논문의 일부에서, 2006년 하반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된장녀’ 논쟁을 인터넷 게시물과 몇몇 특집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그는, ‘된장녀’가 ‘현대화’ 과정에서 이를 빠르게 체화하고 이에 적응한 여성이라는 점에서 1920~30년대 ‘모던걸’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된장녀’의 “코스모폴리탄적 지향성”과 과도한 소비는 남성에게 의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문제시되었고, 이들은 “전통적 젠더 규범”을 일탈하고, ‘자본주의적 소비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나쁜’ 여성들로서 단일하게 표상되는 경향¹⁶⁾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⁷⁾

이상의 ‘된장녀’ 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는, ‘된장녀’와 ‘모던걸’의 공통점에 주목하여, 담론으로서의 ‘된장녀’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근대성과 연관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15) 서지영, 상계논문, pp. 210~211.

16) 모현주, 전계논문, p. 54.

17) 모현주, 전계논문, pp. 45~54 참조.

또한 그 특징 역시 “전통적 젠더 규범”의 이탈, “자본주의적 소비욕망”의 표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망각¹⁸⁾이라는 세 지표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몇 인터넷 게시물과 특집기사만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어, ‘된장녀’ 현상의 복잡한 층위를 분석해내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된장녀’ 현상을 주류 담론 및 남성의 ‘여성의 욕망에 대한 통제 욕구’가 좌절되며 생기게 된 일종의 담론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역시 ‘실재’와 ‘담론’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된장녀’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III. 접근방법

1. 분석 대상의 한정 및 구체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본 연구에 있어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첫째, ‘모던걸’ 현상과 ‘된장녀’ 현상은 양자 모두 ‘근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 둘째, ‘모던걸’ 현상은 담론과 실재가 분리되어 나타났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연구에서 이미 담론과 실재의 층위로 면밀히 분석되어 있는 ‘모던걸’과 달리, ‘된장녀’는 그 층위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따라서 본고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된장녀’ 현상을 두 가지 층위로 파악하고, 이 두 층위의 ‘된장녀’ 개념이 대중매체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재구성해본 다음, ‘된장녀’ 현상과 ‘모던걸’ 현상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대중매체는 종합일간지로 한정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으로 다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정된 시간과 자원으로 인해 모든 대중매체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분석은 시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대중매체 중에서도 신문은 매체신뢰도가 비교적 높고¹⁹⁾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큰 매체이기 때문이다. 셋째, 기사는 문자의 형태로

18) 모현주, 진계논문, p. 54.

19) ‘한국신문협회 독자 프로파일 조사(2006)’에 의하면, 신문, TV뉴스, 라디오뉴스, 잡지, 인터넷을 대상으로 한 ‘매체별 신뢰도’ 조사에서 신문은 1위인 TV뉴스(69.2%)에 이어 2위(62.7%)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1위와는 거의 비슷한 수치이나 3위인 인터넷(24.2%)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2006 한국신문-통계로 본 한국신문산업」(2007.3.6), 『한국신문협회』, (<http://www.presskorea.or.kr>, 2009. 10. 30.))

있는지라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고는 분석의 대상을 신문, 그 중에서도 종합일간지로 한정하였고, ‘된장녀’ 담론이 가장 활발했던 2006년의 중앙일간신문 매출액²⁰⁾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신문을 추렸다. 언론재단의 기사 검색 사이트인 ‘카인즈(<http://www.kinds.or.kr>)’와 『조선일보』 홈페이지, 『중앙일보』 홈페이지²¹⁾에서 ‘된장녀’라는 키워드를 넣고 ‘된장녀’라는 말이 처음으로 언론에서 거론되었던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까지의 각 신문의 기사를 검색했다. 그중 많은 기사가 검색된 상위 5개 신문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경향신문』(85건), 『조선일보』(49건), 『한겨레신문』(45건), 『중앙일보』(44건), 『동아일보』(43건) 순이다. 이중 상대적으로 보수지에 속한다고 평가되는 신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며, 상대적으로 진보지에 속한다고 평가되는 신문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이다. 본고에서는 보수지와 진보지에서 각각 한 개의 신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 가지 현상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보수지와 진보지의 기사 수를 비슷하게 맞추기로 하였다. 『경향신문』을 제외하고는 검색된 기사의 수가 대체로 비슷했기 때문에 『경향신문』을 제외하고, 다음으로 기사가 많은 보수지 『조선일보』와 진보지 『한겨레신문』을 기사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틀

본고에서 사용할 ‘된장녀’의 개념과 분석틀은 김수진(2005)과 서지영(2006)의 ‘모던걸’에 대한 개념과 분석틀을 기초로 하였으며, 모현주(2007)의 ‘된장녀’에 대한 연구도 참조하였다. ‘된장녀’ 역시 ‘모던걸’과 동일하게 두 가지 층위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층위는 실재로서의 ‘된장녀’, 즉 기표로서의 ‘된장녀’가 바탕을 두고 있는 실제의 여성 집단이다. 이들 여성 집단은 주로 여대생,²²⁾ 미혼여성, 20,30대 여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들 여성 중에서도 특정한 소비 형태나 행동을 취하는 여성

20) 「2006 한국신문-통계로 본 한국신문산업」(2007.3.6), 『한국신문협회』, (<http://www.press-korea.or.kr>, 2009. 10. 30.)

21)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카인즈’ 검색을 지원하지 않는다.

22) ‘여대생’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어휘로 “여자 대학생”을 줄이어 이르는 말”로 풀이된다. 반면 ‘남대생’이라는 어휘는 국어사전에 없고 실제로도 거의 쓰이지 않는다. ‘여대생’이란 어휘는 있지만 ‘남대생’이란 어휘가 없는 현상 또한 주목할 만한 하다.

들을 가리킨다. 즉, 여대생, 미혼여성, 20,30대 여성이 특정한 소비 형태나 행동을 취하는 순간, 그 여성의 상황이나 다른 맥락은 무시된 채 그 여성은 '된장녀'로 호명된다. 종합일간지의 기사를 통해, 이들 젊은 여성 중 구체적으로 어떤 소비 형태나 행동을 보이는 여성이 실제 '된장녀'라고 지칭되는지 분석할 수 있다. 그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프렌차이즈 커피와 미국식 외식업체를 소비하는 여성
- ② 자신을 치장하는 물품을 소비하는 여성
- ③ 남성을 경제력으로 평가한다고 추측되는 여성
- ④ 남성을 위협하는 여성

두 번째 층위는 담론으로서의 '된장녀', 즉 대중매체라는 장(場)에서 언설과 글, 이미지 등으로 형성되고 이야기되며 만들어지는 구성물이다. 이들은 서구적 문화·자본주의와 결부된 양가적 근대성이 '젊은 여성'에 투영되면서, 근대성의 '나쁜' 요소를 모방하는 측면이 모여 있는 집합소이다. 즉, '된장녀'라고 호명되는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담론으로서의 '된장녀'는 이 '나쁜' 요소에 의해 여러 유형으로 분석될 수 있다. 김수진은 담론으로서의 '모던걸'의 '나쁜' 요소를 서구적 문물에 대한 욕망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욕망으로 파악하였다.²³⁾ 서지영은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여 전자를 다시 이분하여, 서구적인 외양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욕망, 자본주의적 소비 욕망, 섹슈얼리티에 대한 욕망의 세 측면으로 파악하였다.²⁴⁾ 모현주는 담론으로서의 '된장녀'를 규정하며 “전통적 젠더 규범의 일탈”, “자본주의적 소비 욕망”,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망각”의 세 요소를 들고 있다.²⁵⁾

본고는 이러한 기존 논의를 참조하여 그 내용에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우선 '모던걸'의 '나쁜' 요소인 서구적 문물에 대한 욕망과 자본주의적 소비 욕망을 '된장녀' 분석의 한 측면으로 받아들였으며, 섹슈얼리티에 대한 욕망은 '된장녀'를 분석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삭제하였다. 대신 모현주가 지적한 “전통적 젠더 규범의 일탈”을 추가하였다.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망각”은 서구적 문물에 대한 욕망과

23) 김수진, 전계논문 참조.

24) 서지영, 전계논문, p. 223.

25) 모현주, 전계논문, p. 54.

상통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생략했으며, 교양과 지성의 결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두 번째 층위의 ‘된장녀’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할 세 가지 ‘나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① 서구적 문물에 대한 욕망과 자본주의적 소비 욕망의 표출
- ② 교양과 지성의 결여
- ③ ‘전통적 젠더 규범’의 위반

본고는 이상과 같은 실재로서의 ‘된장녀’의 네 유형과 담론으로서의 ‘된장녀’의 세 요소가 대상 기사에 나타나는 빈도수 및 그 내용을 조사함으로써 ‘된장녀’ 관련 기사를 분석할 것이다. 한 개의 기사가 두 유형/요소 이상에 포함될 경우는, ‘두 가지 요소 이상의 혼합’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 분류하였다.

IV. 연구문제와 연구대상

본고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한국의 대중매체에서 ‘된장녀’라는 기표는 실제적으로 어떤 여성 집단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둘째, 2000년대 한국의 대중매체라는 담론장에서 담론으로서의 ‘된장녀’는 어떻게 형성되고 구성되어져 가는가?

셋째, 2000년대 한국사회의 ‘된장녀’와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사회의 ‘모던걸’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본고의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1월 1일~2009년 10월 31일 『조선일보』의 기사: ‘된장녀’를 키워드로 했을 때 검색된 49건의 기사.

둘째, 2006년 1월 1일~2009년 10월 31일 『한겨레신문』의 기사: ‘된장녀’를 키워드로 했을 때 검색된 45건의 기사.

V. ‘된장녀’의 두 층위 분석

1. ‘된장녀’의 첫 번째 층위: 실재

실재로서의 ‘된장녀’는 여대생, 미혼여성, 20, 30대 여성 중에서도 특정한 소비 형태나 행동을 보이는 여성을 가리킨다. 즉, 이들은 그러한 소비 형태나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맥락은 무시된 채 ‘된장녀’라고 불리게 되는 여성들이다. 이들 젊은 여성이 ‘된장녀’로 지칭되게끔 하는 특정한 소비 형태나 행동의 구체적인 양상이 기사에 드러나는 비율을 보면 <표 1>과 같다. ‘실재 반영’ 항목은 ‘된장녀’로 지칭되는(혹은 ‘된장녀’와 연관되는) 여성의 소비 형태나 행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 예컨대 ‘스타벅스’ 커피를 소비한다든지, 재벌 남성과 결혼을 했든지 - 기사이다. ‘실재 미반영’ 항목은 ‘된장녀’라는 기표에 해당하는 속성이 드러나 있으나, 그 기반이 되는 구체적인 여성의 행동 양상은 드러나지 않는 기사이다. ‘용어의 단순 사용’ 항목은 ‘된장녀’의 두 층위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단편적으로만 ‘된장녀’란 용어를 사용하고 넘어가는 기사를 이른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 대상이 되는 기사를 살펴보면, ‘된장녀’의 첫 번째 층위가 드러나는 기사는 전체 기사의 54.26%에 해당한다.

<표 1> 실재로서의 ‘된장녀’가 반영된 기사가 전체 ‘된장녀’ 관련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합계
실재 반영	26 (53.06%)	25 (55.56%)	51 (54.26%)
실재 미반영	14 (28.57%)	7 (15.56%)	21 (22.34%)
용어의 단순 사용	9 (18.37%)	13 (28.89%)	22 (23.40%)
합 계	49 (100.00%)	45 (100.00%)	94 (100.00%)

(※ 각 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실재 반영’ 항목에 해당하는 기사에서 ‘된장녀’로 지칭되고 있는 여성의 구체적 소비 형태나 행동 양상을 추출하여 분류해보면 <표 2>와 같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 모두 ‘자신을 치장하는 물품을 소비하는 여성’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된장녀’로 지칭되고 있으며, 뒤이어 ‘프렌차이즈 커피와 미국식 외식업체를 소비하는 여성’과 ‘두 개 요소 이상의 행동이 혼재된 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실재로서의 ‘된장녀’의 유형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합계
프렌차이즈 커피와 미국식 외식업체를 소비하는 여성	6	6	12
자신을 치장하는 물품을 소비하는 여성	8	10	18
남성을 경제력으로 평가한다고 추측되는 여성	2	5	7
남성을 위협하는 여성	4	0	4
두 가지 요소 이상의 혼합	6	4	10
합 계	26	25	51

1) 프렌차이즈 커피와 미국식 외식업체를 소비하는 여성

‘스타벅스’로 대표되는 프렌차이즈 커피와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외식업체를 소비하는 여성은, 기사에서 빈번하게 ‘된장녀’로 호명된다. 물론 기사에서 이들 여성을 직접적으로 ‘된장녀’라 부르며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기사에서 프렌차이즈 커피나 미국식 외식업체의 소비는 ‘된장녀’를 거론할 때 동반하여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된장녀’ 이미지와 직결된다. 예컨대 『조선일보』의 한 기사는 “모처럼 도서관에서 만난 복학생 선배”에게 “테이크아웃점 커피”를 한 잔 사달라고 했다가 “너도 된장녀냐?”라는 “이상한 말”을 들은 여자 대학생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²⁶⁾ 또한 같은 신문의 다른 기사는 “요즘 카드업체에선 커피 할인 서비스로 20대 직장 여성을 집중 공략하는 ‘된장녀 카드’가 유행”이며, 이 카드는 “점심은 2000원짜리 라면으로 때우더라도 커피는 4000원짜리 테이크 아웃 커피를 즐기는 소비계층을 겨냥한 것”이라 설명하기도 한다.²⁷⁾ 이들 기사에서 수 천 원대의 프렌차이즈 커피를 소비하는 여성은, 그 기사가 ‘된장녀’ 현상을 비판하는 것이든 수용하는 것이든 그 여부에 상관없이, ‘된장녀’의 이미지와 연결되게 된다. 이들 여성이 소비하는 커피나 외식업체는 ‘스타벅스’,²⁸⁾ ‘밥값보다 비싼 커피’,²⁹⁾ ‘테이크아웃

26) 「대학가 新남녀갈등’… 된장 여학생 vs 고추장 남학생 논쟁 허영부리는 ‘된장女’ vs 궁상떠는 ‘고추장男」(2006. 08. 04), 『조선일보』, A24면.

27) 「[Moring Coffee] ‘된장녀 카드’ 잘 나가네」(2006. 09. 21), 『조선일보』, 경제 B1면.

28) 「[유레카] 매스티지와 된장녀」(2006. 08. 18), 『한겨레신문』, 26면.

29) 「[조선일보를 읽고] 커피 할인 카드가 ‘된장녀 카드’?」(2006. 09. 26), 『조선일보』, 여론/독자 A33면.

커피³⁰⁾, ‘던킨도너츠’³¹⁾, ‘페밀리 레스토랑’³²⁾, ‘브런치’³³⁾ 등의 프랜차이즈 커피나 미국식 외식업체다. 젊은 여성이 이러한 프랜차이즈 커피나 미국식 외식업체를 소비하는 순간, 그 여성이 처한 상황이나 다른 맥락은 무시된 채 그 여성은 ‘된장녀’로 호명된다.

2) 자신을 치장하는 물품을 소비하는 여성

옷, 구두, 가방 등 자신을 치장하는 물품을 소비하는 여성, 즉 쇼핑하는 여성은 가장 높은 빈도로 ‘된장녀’로 호명된다. 이들 여성이 소비하는 옷, 구두, 가방 등은 주로 소위 말하는 ‘명품’³⁴⁾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명품’이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한 번에 1만원씩 하는 ‘네일아트’³⁵⁾를 즐기거나,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가방”³⁶⁾을 들고 다니는 여성 등 사람들로부터 치장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이 ‘된장녀’로 호명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쇼핑”을 즐기는 여성이 ‘된장녀’로 호명되기도 한다.³⁷⁾ 벼룩시장에 “사놓고 장롱에만 처박아 놓았던 옷들을 처분하기 위해 나왔는데 이름 나오면 사람들이 된장녀로 오해할 거 같아 이름은 밝힐 수 없다”는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언급된 기사³⁸⁾는 이를 잘 드러내 준다.

30) 「그 비싼 커피를 즐기지 서가면서!」(2007. 05. 12), 『조선일보』, 기타 B15면.

31) 「대학가 新남녀갈등... 된장 여학생 vs 고추장 남학생 논쟁 허영부리는 ‘된장女’ vs 궁상떠는 ‘고추장男」(2006. 08. 04), 『조선일보』, A24면.

32) 「“된장녀란 말도 알아요” 10개 국어 능통한 제임스 머로우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2006. 09. 11), 『조선일보』, 통판 B8면.

33) 「한겨레 매거진 esc-커버스토리/문제적 채널 tvN」(2009. 09. 03), 『한겨레신문』, 29면.

34) 명품(名品)의 국어사전적 정의는 “뛰어난 물건(작품)”이나, 여기서는 이 의미라기보다는 “분수에 지나치거나 생활의 필요 정도에 넘치는 물품”으로 정의되는 사치품(奢侈品, luxury) 정도의 뜻으로 사용된다.

35) 「19~24살 여성들 소비행태 분석 /된장녀가 어디 있어?」(2006. 08. 26), 『한겨레신문』, 03면.

36) 「[안광복 교사의 인문학 올드 앤 뉴] 2. 옛지, 된장녀, 그리고 과시적 소비 - 자본주의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과시적 소비를 먹고 사는 자본주의」(2009. 09. 14), 『한겨레신문』, 37면.

37) 「한겨레 매거진 ESC-여행/오름을 지나 모래사장과 풀밭 언덕을 오르며 말과 노니는 제주올레 걷기 여행 /흙길의 탄력으로 제주를 느껴보자」(2007. 11. 08), 『한겨레신문』, M06면.

38) 「한겨레 매거진 Esc-커버스토리/벼룩의 간은 안 파나요?」(2008. 09. 18), 『한겨레신문』, M01면.

3) 남성을 경제력으로 평가한다고 추측되는 여성

남성의 경제력을 잣대로 그 남성을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여성, 또는 자신보다 부유한 남성과 교제하거나 결혼하는 여성 등도 '된장녀'로 호명된다. 이들은 남성을 경제력으로 평가한다는(혹은 평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에서 '된장녀'로 비난 받는다.

전자인 '남성의 경제력을 잣대로 그 남성을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여성'의 경우는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남성을 평가하는 기준=경제력'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여성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남자친구가 근사한 이벤트를 열어주고 난 뒤 할인카드를 계산하면 실망스러워요."라고 말해 '된장녀'로 구설수에 오른 한 여성 연예인의 경우를 언급하며, "'된장녀'가 아닌 알뜰한 여자 친구"를 얻으라며 할인카드 정보를 제시하는 기사³⁹⁾가 있다. 그리고 케이블 음악채널에 출연해 "지갑만 보면 경제력을 알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퀸카'가 '된장녀'로 비난 받고 있다는 기사⁴⁰⁾ 역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남성의 경제력을 잣대로 그 남성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여성들이다.

그러나 후자인 '자신보다 부유한 남성과 교제하거나 결혼하는 여성'의 경우, 이들 여성이 그 남성과 교제하거나 결혼하게 된 다른 배경이나 맥락은 무시되고, 그 남성이 '재벌'이라거나 '여성보다 부유하다'는 점이 부각되어 그 여성은 '된장녀'로 낙인 찍힌다. 주로 여성 연예인이 이렇게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다. "재벌가로 시집가는 노현정"이 '된장녀'로 호명되었다고 언급한 기사⁴¹⁾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 남성을 위협하는 여성

남성을 위협하는 여성이 '된장녀'로 호명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고학력 및 뛰어난 일 처리 실력을 소유 - "미국 유학을 마친 33세의 노처녀" - 하고⁴²⁾ 있거나,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 - "술, 담배, 문란한 섹스와 문신, 동거"⁴³⁾ - 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39) 「할인카드' 눈치보지 말고 쓰자 재테크 마인드 없는 '된장녀'를 위하여... 그의 '알뜰한 충고」(2006. 08. 22), 『조선일보』, 경제 B15면.

40) 「와글시끌 e세상/기획된 된장녀/비난속 유명세」(2007. 02. 20), 『한겨레신문』, 12면.

41) 「[세상읽기] 된장녀 속에 비친 여성관」(2006. 08. 21), 『한겨레신문』, 22면.

42) 「[도서] 그녀는 안개와 함께 왔다」(2007. 03. 31), 『조선일보』, Books D5면.

43) 「[백영옥의 '트렌드 샷'] 나쁜 게 왜 좋아?」(2007. 02. 01), 『조선일보』, 주말매거진 D9면.

학력이나 섹슈얼리티를 이용하여 남성에 대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들이다.

2. ‘된장녀’의 두 번째 층위: 담론

담론으로서의 ‘된장녀’는 앞서 분석한 실재로서의 ‘된장녀’와 달리 ‘된장녀’의 공통적인 속성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들이다. 즉, 한 젊은 여성이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된장녀’로 호명되는 순간, 그 여성은 자신이 실제로 그런 성격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된장녀’의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 것으로 치부된다.

이러한 ‘된장녀’의 공통적인 속성, 즉 담론으로서의 ‘된장녀’가 기사에서 구성되어 있는 양상을 보면 <표 3>과 같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 ‘서구적 문물에 대한 욕망과 자본주의적 소비 욕망의 표출’로서 ‘된장녀’ 이미지를 구성해낸 유형의 ‘된장녀’ 관련 기사가 53.6%와 46.67%로서 가장 많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유형의 기사가 50%에 달한다. ‘된장녀’의 두 층위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단편적으로만 ‘된장녀’ 용어를 사용하고 넘어가는 ‘용어의 단순 사용’에 해당하는 기사가 두 번째로 많은 23.4%를 기록하는데, 이는 그만큼 ‘된장녀’라는 용어가 일간지라는 담론장 안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을 암시해준다. ‘전통적 젠더 규범의 위반’에 해당하는 기사와 ‘두 가지 요소 이상이 혼합’된 기사가 엇비슷한 비율을 기록하며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교양과 지성의 결여’를 보여주는 기사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담론으로서의 ‘된장녀’의 유형과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합 계
① 서구 문물 및 소비에 대한 욕망의 표출	26 (53.06%)	21 (46.67%)	47 (50.00%)
② 교양과 지성의 결여	1 (2.04%)	1 (2.22%)	2 (2.13%)
③ ‘전통적 젠더 규범’의 위반	8 (16.33%)	4 (8.89%)	12 (12.77%)
두 가지 요소 이상의 혼합	5 (10.20%)	6 (13.33%)	11 (11.70%)
용어의 단순 사용	9 (18.37%)	13 (28.89%)	22 (23.40%)
합계	49 (100.00%)	45 (100.00%)	94 (100.00%)

(※ 각 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담론으로서의 '된장녀'의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담론으로서의 '된장녀'의 세부 유형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합계
① 서구 문물 및 소비에 대한 욕망의 표출	서구	4	5	9
	소비	15	10	25
	서구+소비	7	6	13
② 교양과 지성의 결여		1	1	2
③ '전통적 젠더 규범'의 위반		8	4	12
두 가지 요소 이상의 혼합	①+②	1	2	3
	①+③	2	4	6
	②+③	1	0	1
	①+②+③	1	0	1
용어의 단순 사용		9	13	22
합 계		49	45	94

1) 서구적 문물에 대한 욕망과 자본주의적 소비 욕망의 표출

분석한 기사에서의 '된장녀'는 '서구적 문물에 대한 욕망과 자본주의적 소비 욕망'을 표출하고 있는 부정적인 여성으로서 표상된다. 이들은 민족의 주체성을 망각한 채 서구적(특히 미국적) 문물의 아이콘을 비주체적으로 욕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예컨대 '스타벅스'의 테이크아웃 커피라는 아이콘을 소비하고 있는 여성은 한 기사에서,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듯, 출근길, 등굣길에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바쁜 걸음으로 내달리는 모습이 동경의 대상"이라며 "커피전문점 컵은 귀고리나 모자 같은 하나의 액세서리"44)라고 말한다. 이 기사에 언급된 여성의 말은 서구적 문물을 향한 욕망이 "미국 드라마"라는 외부의 것에 의해 수동적으로 주입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욕망을 주입당한 젊은 여성은 이를 "액세서리"라는 껍데기로서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즉, 이들 젊은 여성은 서구적 문물을 비주체적이고 천박하게 모방하는 '된장녀'로 표상된다.

또한 '된장녀'는 자본주의적 소비 욕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들이 욕망하는 대상이 이른바 '명품'이다. 자본주의적 소비 욕망을 표출하는 '된장녀'는

44) 「그 비싼 커피를 줄까지 서가면서!」(2007. 05. 12), 『조선일보』, 기타 B15면.

‘명품’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을 표출하지만, 그 욕망을 충족시킬 능력은 부족한 여성들로 그려진다. 그래서 그들의 무절제한 소비는 ‘허영’⁴⁵⁾과 ‘사치’⁴⁶⁾, 혹은 ‘주제넘는/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⁴⁷⁾라는 부정적 속성을 부여 받는다. 즉, 이들 기사에서 구성된 ‘된장녀’가 표출하는 자본주의적 소비의 욕망은 무절제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2) 교양과 지성의 결여

‘된장녀’는 교양과 지성이 결여된 여성으로 표상된다. 책방에서 “전공책은 달랑 한 권, 패션 잡지책은 10권”⁴⁸⁾을 산다는 ‘된장녀’는 ‘전공책’으로 상징되는 교양과 지성은 결여된 채, ‘패션 잡지책’으로 상징되는 외적 치장에만 몰두하는 부정적인 젊은 여성이다. 이들은 교양과 지성이 결여되어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의해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이 된다.

이들이 보여주는 ‘교양과 지성의 결여’는, 앞서 언급한 ‘서구적 문물에 대한 욕망과 자본주의적 소비 욕망’과 관계가 있다. 이들은 교양과 지성이 없기 때문에 서구적 문물을 비주체적으로 모방하며, 또한 무절제한 자본주의적 소비욕망을 표출한다. 서구적 문물과 자본주의적 소비 형태의 수용, 즉 ‘근대성’의 수용에 있어 ‘교양과 지성’이 결여되면 그 수용 양상은 부정적 모습을 띠게 된다. 근대성 수용의 부정적 양상은 젊은 여성이라는 집단에 쉽게 투영되어 교양과 지성이 결여된 ‘된장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45) 「[김구라의 ‘쿨 아이’] 일부 여자연예인들 ‘된장냄새’ 없애려면」(2006. 08. 25), 『조선일보』, 문화 A21면: 「우리 몸 지켜주는 ‘된장님’… 각양각색 요리법 기록한 된장 미안하다, 이름 갖고 장난쳐서… 네가 ‘가을 보약’인줄 몰랐구나」(2006. 08. 30), 『조선일보』, 문화 A20면: 「[특파원칼럼] ‘신의 물방울’과 ‘된장녀」(2006. 10. 25), 『조선일보』, 여론/독자 A34면: 「왜 남자는 ‘다람쥐’고 여자는 ‘꽃뱀’인가 “성범죄 남녀에 대한 비판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2006. 11. 13), 『조선일보』, 문화 A23면: 「[박해현 기자의 킬러 메일] ‘우생순’과 ‘남한산성」(2008. 01. 21), 『조선일보』, 문화 A23면: 「[세상읽기] 된장녀 속에 비친 여성관」(2006. 08. 21), 『한겨레신문』, 22면.

46) 「[김구라의 ‘쿨 아이’] 일부 여자연예인들 ‘된장냄새’ 없애려면」(2006. 08. 25), 『조선일보』, 문화 A21면: 「[세상읽기] 된장녀 속에 비친 여성관」(2006. 08. 21), 『한겨레신문』, 22면.

47) 「[유레카] 매스터지와 된장녀」(2006. 08. 18), 『한겨레신문』, 26면: 「왜냐면/ 된장녀는 정말 괴물일까?」(2006. 08. 25), 『한겨레신문』, 25면.

48) 「나, 속물이거든! 너는 안 그래?/아이콘으로 자리잡는 서인영, 김구라」(2006. 05. 26), 『한겨레신문』, 23면.

3) '전통적 젠더 규범'의 위반

'된장녀'는 전통적 젠더 규범을 위반하는 여성으로 표상된다. 전통적 젠더 규범의 위반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남성을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습, 두 번째,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소유하며 그 능력으로 남성의 지위를 위협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두 가지 모습 중에서는 첫 번째 모습이 훨씬 많이 나타난다. 예컨대, 이들은 복학생 남성에게 “달라 붙어, “복학생 일주일 밥값”을 한 끼 식사로 날려버리고,⁴⁹⁾ 남성의 돈을 헤프게 쓰며 “남자 등골을 빼먹는” 모습으로 나타난다.⁵⁰⁾ 반면, 두 번째의 모습처럼, “남성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 같지 않은 여성”이나 “전지구화 시대에 남성들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는 여성, “국가시험 수석”을 차지하는 여성, “또래 남성들보다 능력 있고 호기심 많고 꿈 많은 20대 여성” 등이 '된장녀'로 호명⁵¹⁾되기도 하지만, 그 빈도수는 극히 떨어진다.

'전통적 젠더 규범'을 위반하고 있는 '된장녀'의 모습은 대개 첫 번째의 모습, 즉 남성을 이용하고 수탈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이들은 도덕적으로 '나쁘며',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비주체적이다. 이러한 '나쁘고' 비주체적인 '된장녀'의 모습은 '된장녀'가 욕망하는 서구적 문물의 아이콘 - '스타벅스'나 패밀리 레스토랑 등과 같은 - 과 결부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표출할 수 있게 된 것은 근대 이후이다. 이 때문에 여성의 욕망은 근대화의 여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들 '젊은 여성'은 한국 사회의 주류 집단이 아니다. 그런 그들이 사회의 다른 어떤 집단보다 특정 서구적 문물을 빨리 수용할 때, 이는 한국 사회의 다른 집단에 의해 낯설고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따라서 '젊은 여성'은 특정 서구적 문물의 아이콘과 결부되어 부정적으로 표상되며, '나쁘고' 비주체적인 '된장녀'로 공격받는다.

49) 「대학가 新남녀갈등」… 된장 여학생 vs 고추장 남학생 논쟁 허영부리는 '된장女' vs 궁상떠는 '고추장男」(2006. 08. 04), 『조선일보』, A24면.

50) 「된장녀를 손가락질 하려거든…」(2006. 08. 19), 『조선일보』, 여론/독자 A31면.

51) 「여성 위한 '인생 전투교본' 낸 차영씨 “떨들아, 전쟁터를 즐겨라”」(2006. 09. 22), 『조선일보』, 사람 A35면; 「[아! 한국사회] 남성들이 두려워하는 것」(2006. 09. 19), 『한겨레신문』, 31면.

3. 실재와 담론 사이의 간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된장녀’의 실재와 담론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실재로서의 ‘된장녀’에 해당하는 네 집단, 즉 프렌차이즈 커피와 미국식 외식업체를 소비하는 여성, 자신을 치장하는 물품을 소비하는 여성, 남성을 경제력으로 평가한다고 추측되는 여성, 남성을 위협하는 여성은 서로 이질적인 집단이다. 그리고 이 집단 내에서도 이들 여성 각자의 행동 양상은 저마다 이질적이고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스타벅스’의 테이크아웃 커피를 소비하는 젊은 여성 집단은 부유한 남성과 교제하거나 결혼하는 - 따라서 남성을 경제력이라는 잣대로 평가한다고 여겨지기 쉬운 - 젊은 여성 집단과는 논리적 연결고리가 취약한 별개의 집단이다. 이들 여성 집단은 일정 부분 겹칠 수도 있으나 대체로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빈도로 ‘된장녀’로 호명되고 있는 ‘자신을 치장하는 물품을 소비하는 여성’ 집단의 경우, 이 집단 내에서도 광범위한 소비의 스펙트럼이 공존한다. 실제로 수 백 만원이나 수 천 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소비하는 - 물론 이러한 ‘명품’ 가방을 소비하기 위한 경제력의 출처 역시, 자기 자신에서부터 부모, 동성이나 이성 친구, 교제 중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여성 각자마다 천차만별이다 - 여성이 있는가 하면, ‘명품’이 아닌 옷이나 구두나 가방을 쇼핑하는 여성이 있고, 다른 데서 돈을 절약하여 그 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물품을 소비하는 여성이 있다.

이들의 소비나 행동은 이렇게 서로 이질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된장녀’라는 호명 하에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상된다. ‘된장녀’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 속성은 서구적 문물에 대한 욕망과 자본주의적 소비 욕망의 표출, 교양과 지성의 결여, ‘전통적 젠더 규범’의 위반이 있으며, 이것이 곧 담론으로서의 ‘된장녀’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나쁜’ 요소들이다. 한 젊은 여성이 ‘된장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특정한 소비나 행동을 하는 순간, 그 소비나 행동의 맥락은 소거되고 그 여성은 ‘나쁜’ 속성을 한 데 지닌 ‘된장녀’로 호명된다. 예컨대 한 젊은 여성이 수 천 원대의 테이크아웃 커피를 소비하는 순간, 그 여성은 ‘사치스럽고 허영에 들뜬, 지성과 교양이 없으며 남성을 수탈하는 나쁜 된장녀’의 속성을 부여 받게 된다. 이는 ‘된장녀’의 실재와 담론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VI. 결론

2000년대의 '된장녀' 현상은 실제와 담론의 두 층위로 분리되어 나타났다는 점에서 1920~30년대의 '모던걸' 현상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된장녀' 현상을 다루는 데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재로서의 '된장녀'가 바탕을 두고 있는 실제 여성 집단은 '프렌차이즈 커피와 미국식 외식업체를 소비하는 여성', '자신을 치장하는 물품을 소비하는 여성', '남성을 경제력으로 평가한다고 추측되는 여성', '남성을 위협하는 여성', 이상의 네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치장하는 물품을 소비하는 여성'과 '프렌차이즈 커피와 미국식 외식업체를 소비하는 여성'이다. 이들은 서로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의 테이크아웃 커피나 '명품으로 추측되는 가방'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주체적이고 허영에 들떠있으며 남성을 수탈하는 '나쁜' '된장녀'로 표상된다.

이들이 소비하는 '스타벅스'의 테이크아웃 커피나 '명품으로 추측되는 가방'은 나름의 합리적 소비관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여성은 '스타벅스'의 테이크아웃 커피나 '명품으로 추측되는 가방' - 그러나 이들이 구매하는 브랜드의 가방은 실제 엄청난 가격대를 호가하는 '명품'이 아닌 합리적 가격대의 브랜드인 경우도 많다 - 으로 상징되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는 돈을 기꺼이 쓰지만, 대신 다른 영역에서는 '쿠폰'과 '할인 사이트'를 챙겨가며 돈을 아낀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돈을 아낌없이 쓰고 대신 다른 영역에서 돈을 절약하는 것은 그다지 낯선 모습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집단에게 낯선 것이다. 이들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서구적 문물이나 자본주의적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서구적 문물에 보다 친화적인 이들 '젊은 여성'의 이미지는 근대성의 속성과 쉽게 결부되며, 사회는 이들 '젊은 여성'이라는 필터를 통해 근대성을 바라본다. 달리 말하면 '젊은 여성'이라는 집단에는 '근대성'이 투영되기 쉽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국 사회에 있어 서구적 문물이나 자본주의 문화가 담지하고 있는 '근대성'은 '우월하고 발전된, 지향해야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비주체적이고 천박한, 나쁜 것'이라는 양가적 속성을 한 데 지니고 있다. 담론으로서의 '된장녀'는 이 중 부정적인 측면의 '나쁜' 근대성이 투영된 집합소이다. '나쁜' 근대성이 투영된 집합소로서의 '된장녀'는, 서구적 문물이나

자본주의적 문화를 주체적이고 신중하게 수용하지 못한 채, 비주체적이고 무절제하게 수용하고 모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외압의 영향”⁵²⁾ 아래 근대화를 추진해야 했던 한국 사회가 어쩔 수 없이 대면해왔고 또한 지금도 대면하고 있는 근대화의 ‘나쁜’ 측면이다.

〈참고문헌〉

- 권희영, 「1920~30년대 ‘신여성’과 모더니티의 문제 - 『新女性』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54집, 한국사회사학회, 1998, pp.43~76.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 김수진, 「1920~30년대 신여성담론과 상징의 구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 김진송, 『현대성의 형성: 서울에 판스홀을 許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 모현주, 「20, 30대 고학력 싱글 직장 여성들의 소비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7.
- 사라 밀즈, 『담론』, 김부용 역, 인간사랑, 2001.
- 서지영, 「식민지 조선의 모던걸: 1920~30년대 경성 거리의 여성 산책자」,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06, pp.199~228.
-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신여성(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2005.
- 윤영옥, 「1920~30년대 여성잡지에 나타난 신여성 개념의 의미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의 - 『신여성』을 중심으로」, 『國語文學』 第40輯, 국어문학회, 2005, pp.201~224.
- 주창윤, 「1920~30년대 ‘모던 세대’의 형성과정」, 『한국언론학보』 52권, 한국언론학회, 2008, pp.186~206.
- 「2006 한국신문-통계로 본 한국신문산업」, 『한국신문협회』, 2007. 3. 06 (<http://www.press-korea.or.kr>, 2009. 10. 30.)

52) 모현주(2007), 전계논문, pp. 51~52.

심사평

장 려 상

손 형 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00년대 대중매체에 드러난 양가적 근대성의 표출로서 ‘된장녀’ 현상의 두 층위

- 1920~30년대 대중매체에 드러난 ‘모던걸’ 현상과 비교하여

이 글은 ‘된장녀’와 ‘모던걸’에 나타난 담론과 실재로서의 간격을 유사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 매체에서 화두가 되었던 ‘된장녀’ 논란을 우리 사회의 양가적 근대성 가운데 부정적인 평가를 반영한 현상으로 실재와 담론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주제가 흥미롭고 문제의식이 잘 담긴 글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된장녀’ 현상을 근대화 시기(1920년~30년)의 ‘모던걸’ 현상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은 글쓴이의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글은 전반적으로 기존 연구의 축적 위에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고 연구 논문의 형식을 잘 갖춘 우수한 글이다. 기존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잘 검토하고, 이를 자신의 연구에 적용하여 독창적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점이 이 글의 큰 장점이라고 본다. 다만 기존 연구의 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요한 논지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좀 더 치밀한 성찰을 했다면 더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접근이 가능했으리라 본다.

글쓴이는 기존 연구에서의 우리나라 근대화가 외부로부터 압력에 의해 가능했다는 점에서 근대에 대한 엇갈린 태도(근대성의 양가성)가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의 논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여성과 관련한 근대성의 평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근대성에 대한 대조적인 가치평가는 기존 주류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와 얽혀있다고 본다. 기득권자가 누리는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전통과 근대성의 속성들이 다양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근대적인 속성의 여성성이 유독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좀 더 짚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된장녀’ 현상의 담론과 실재의 분석 유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된장녀’의 실재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담론 유형은 된장녀의 속성을 분류하는 유형으로 기존 연구를 부분 수용한 것이지만, 실재의 분석유형은 어떠한 기준에서 어떠한 근거로 만들어졌는지가 불분명하다. 실재로서의 ‘된장녀’를 네 집단(프랜차이즈 커피와 미국식 외식업체를 소비하는 여성, 자신을 치장하는 물품을 소비하는 여성, 남성을 경제력으로 평가한다고 추측되는 여성, 남성을 위협하는 여성)으로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실재는 소비행태나 행동을, 담론은 공통적 속성을 의미한다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소비행태나 행동(실재)과 공통적 속성(담론)이 어떤 점에서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글의 주요한 논지로서 ‘실재와 담론의 간극’이라는 범주 설정이 다소 무리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 말 그대로 실재 된장녀의 의미와 담론으로서 된장녀의 속성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면 자신의 논지가 보다 확실하게 뒷받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자간의 관계를 검토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 다소 작위적인 분석이라는 인상을 던져준다.

끝으로 결론의 마지막 부분을 시사점이나 함의를 언급하면서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여 준다면 보다 매끄러운 끝맺음이 되리라 본다.

글쓴이는 기존 문헌의 독해력과 비판적 사고 및 창의성이 탁월하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 유의하여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계발하기를 권면한다.

박현희(기초교육원 사회과학 글쓰기 강의교수)